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8월 25일
제목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
본문	누가복음 23:13-25

녹취

• 서론

지금 주일 설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핵심 사역하는 그 부분,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고난의 잔을 담당하시는 이 부분을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전 법정과 공회와 헤롯 왕 앞에 전부 법정에서 세 번 섰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마귀 자녀, 죄인 된 영원한 재앙, 저주 속에 있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주일 본문 설교 정하면 설교하거나 부활절 앞뒤로 설교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 년 내내 계속 설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자주 설교하지 않는다.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게 참 전 세계 교회 현장일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차례대로 설교하는데 십자가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구속사역 핵심되는 복음의 핵심 되는 그리스도를 계속 다루고 있다. 저와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영적 흐름이든 어떤 흐름이든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하나님 말씀 성경에 틀림없이 기록하고 있다. 영적인 흐름도 있고 모든 흐름이 있는데 제일 정확한 답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이 가까워 올 때 재앙과 저주와 전쟁과 기근과 우리 인간의 고통과 갈등과 많은 사건, 문제가 심지어 천지가 흔들리고 혼란한 시대가 온다고 했다. 영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그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237 5천 종족 전 세계 땅끝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 되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성취되는 게 계속 되고 있다. 그 시간표가 지금도 정확하게 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 남은 자, 전도자를 통하여 부르사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이것을 확신하고 믿으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도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돼라 말씀하셨다.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흐름 속에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실천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첫 번째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다.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기도 24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일, 이를 위해 보좌의 능력 약속하신 가운데 기다리라고 했다. 언약을 굳게 잡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 속에 이 언약 확실히 잡고 기도 24로 계속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다.

• 본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사역 정확하게 성취하게 하신다. 사건이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들, 좋은 사건, 나쁜 사건, 좋은 것은 사건이라고 하지 않죠. 나쁜 일, 큰 사고, 불났다, 다리 끊어져 사람이 죽었다, 빌딩이 무너졌다, 전쟁이 났다. 모든 사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 전 세계 사건 이것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원사역의 과정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성취하게 하신다.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 핵심 사역 구속사역의 핵심사역인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사역 하시는데 그냥 덜컥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다. 심지어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셨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제자 중 가롯 유다는 배신하고 예수님 팔고 나중에 자책하고 죽고. 오늘도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앞에 공회 종교 법정에서 섰다.

또 지금 보니까 사건이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유대나라는 속국이 되었는데 로마의 속국이다. 그 당시 빌라도가 총독이다. 빌라도 총독 법정 앞에서 재판받으셨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는 사역이 성취되는 것이다. 빌라도의 재판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이다. 다 있는 것이다. 우리 신앙고백 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비록 인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판하고 조롱도 하고 군인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 너 왕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가시 면류관 씌워 피가 나고 머리로 치고. 왕이라며 하면서 흉포 왕은 번쩍 번쩍한 금 옷을 입잖아요?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한다고 별건 천을 흉포라고 한다. 왕은 금홀을 잡고 통치하는 지팡이나 이것을 잡는다. 너 왕이라며 하면서 갈대 줄

기 줘서 예수님 머리에 치고 조롱하고 잡게 하고 너 왕이라며 하면서 왕 노릇 해봐 하면서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머리를 흔들며 혀를 내어 조롱하며,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즉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성취되게 하셨다.

1. 빌라도의 재판에 서신 그리스도 (눅23:14-16)

1)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고발

첫 번째 빌라도의 재판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고발했다.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죄 그걸로 고발했다.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것도 죽일 사형에 해당하는 죄 없다. 죄가 아니다. 없다. 빌라도가 양심껏 재판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들 고발한다. 백성을 미혹했다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병든 자, 영육 간에 병든 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는데 백성을 미혹하는 죄라고 했다. 말씀에 갈급하여 천국 복음에 갈급하여 예수님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몰려들었다. 깜짝 놀라는 것이다. 이러다가 우리 것이 다 떨어지겠다. 백성을 미혹한다는 죄목으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 건 로마 법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자칭 왕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은 맞췄다. 맞는데 이게 죄목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죄라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정말 영안이 감졌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우리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맞는데 알아보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가이사 왕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바로 재판 안 하면 빌라도가 잘못 걸린다. 또 백성을 소동하게 한 죄다 이렇게 고발했다. 또 다른 내용에 보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회복하겠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 사역을 두고 말한 것이다. 다시 짓겠다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인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이것을 죄목으로 고발했다.

2)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중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죽을죄에 해당한다, 죽을죄가 있다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고 했다. 때려서 놓겠노라.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백성들 앞에 죄가 없는데 왜 이러느냐, 나는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빌라도가 애를 쓸 정도였다. 23:4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빌라도가 말한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가 고발했는데 예수님은 죽일 죄 찾지 못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설득한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괴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그냥 예수님 때려서 혼방하겠다. 요한 복음 19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오히려 애쓰고 힘쓰기까지 했다.

3) 그러나 사탄의 심부름을 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무리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여론이 어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일제히 원니스되어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다음 말할 때는 더욱 소리 질러. 여러분 데모 옛날에 80년 많이 했잖아요? 요즘도 가끔 야

당들이 광화문에서 노조들 데모한다. 소리 지르고 구호 외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욱 소리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 유월절이나 중요한 명절이 되면 빌라도 총독이 전례가 있는데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때 빌라도가 말한다. 그리스도란 예수를 놓아주랴,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말한다. 전례가 있다. 이때 일제히 소리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더욱 소리 질러 그렇게 했다.

2.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선택 -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1)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함 (눅23:21)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최악의 선택이 나왔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큰 소리로 그것도 재촉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의 소리가 민란이 되어 소요가 일어나고 큰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2) 빌라도는 민란이 걱정이 되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함, 여론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됨

이때 빌라도가 민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여 여론에 굴복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었다. 바라바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되게 했다. 빌라도의 우리가 신앙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

난 받으사 했는데 이게 왜 들어갔는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빌라도는 양심껏 죄가 없다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 이게 빌라도의 죄인 것이다.

3) 최악의 잘못된 선택(마27:25) -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영적 눈 감긴 최악의 선택

최악의 선택을 이때 또 누가 했는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 눈이 감긴 최악의 선택을 누가 했는가? 빌라도는 아예 영적 눈이 없는 불신자고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최악의 결정을 했다. 빌라도가 양심이 있었는지 그래도 양심적이었는지 대야에 물을 떠다가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한다. 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상관없다.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손을 씻는다. 너희가 담당하라. 그래서 물로 손을 씻고 빌라도가 너희가 담당하라고 했다. 이때 나는 예수님의 피에 분명히 말했다. 무죄하다. 죄가 없다. 너희가 그 피값을 담당하라. 이때 백성들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서운 말을 하고 선택했다. 후대 렘넌트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생각하지 않은 최악의 선택이다. 렘넌트 후대들에게 가장 큰 재앙과 가장 큰 멸망과 가장 아픈 역사를 남겨주었다.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복음 전달하고 기도의 놀라운 비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보좌의 능력 힘입는 기도의 비밀로 승리하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미래 망대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렘넌트 후대들에게 가장 큰 재앙을 초래한 선택을 하고 물려주게 되었다.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 완전 무너졌다. 성벽 다 무너지고 성전 다 훼파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읍은 불타 없어지고 완전 멸망받았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후손들이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이 되었다. 히틀러의 독가스실에 600만이 죽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서 사는데 나라 이루는 것 전혀 없고 고생하고 그러나 경제는 밝아서 하나님이 먹고살게는 해주셨는데 은행, 저축, 특히 돈 경제 사업, 산업 장사는 얼마나 잘하는지 가는 데마다 돈 벌어드주고 최초 은행 설립한 자 유랑민 유대인들이다. 유럽의 경제 일으킨 자 나라 경제 일으킨 자 유대인들이다. 돈 버는 데는 돈, 부를 쌓는 데는 뭐가 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되기 전까지 전 세계 유랑민되어 흩어져서 살았다. 그다음에 갖은 핍박 다 받고 600만이 학살될 정도로 후대들이 멸망과 재앙을 당했다. 왜? 이때 선택 잘못해서.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꼭 지셔야 하는가? 구속 사역의 핵심인데 왜 십자가를 이토록 지셔야 하는가? 예수님 얼마나 그랬으면 감람산 깃세마네 동산 감람산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만큼 고민된다. 마음이 슬프고 고민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제목 한 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십자가 지는 사역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 그리스도도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흘린 피 문제 해결 못 한다. 결정적인 문제 해결 답이 아니다.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원인인 창세기 3장 사건인 원죄사건이다. 우리 인간이 사탄 즉 마귀 유혹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게 죄다. 그게 원죄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실제 문제고 근본적, 원인적인 문제다. 문제는 만 가지 천만 가지 몇 억 문제가 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되

었다. 원죄다.

또 자범죄도 있다. 조상의 죄, 우상 섬기는 우리나라 5천 년 동안 복음 받기 전까지 철저하게 마귀 망대, 사단 망대 속에 갇힘 속에 우상 섬겼다. 마귀 섬겼다. 얼마나 재앙, 저주 많이 당했는가? 그리스도 복음 빛을 받은 이후에 우상 때려치우고 마귀 섬기던 것 돌아서고 예수 이름 부르고, 야소교, 야소라고 처음 그랬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초창기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정확하게 복음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예수 믿고 천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만큼 우상숭배했다. 조상 숭배의 죄, 얼마나 재앙 저주 많이 당했는가? 이상하게도 조상들이 사단 마귀 섬기는데 속아서 우상숭배 세상 풍속을 좇고 운명사주팔자에 빠져서 정말 우상 섬길 때 영적문제 이상하게 재앙, 저주가 가정가문에 후대들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또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짓는 죄도 많다. 하나님 떠난 인간 요 8:44 마귀 자녀,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하였으매 한 사람도 예외 없다. 다 죄인이다. 마귀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당장 길을 여셨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 되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셔서 구원의 길을 당장 열어주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핵심 구원사역을 성취하시는 구속사역의 핵심,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역이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이게 약해지고 사라지고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그러고 매번 그리스도 십자가 매번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식상해진다. 그게 중세교회가 나타내주는 것이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과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이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 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중세 시대 이르니까 복음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간과하시고 죄가 있는데 간과하시고 심지어는 흰 눈으로 모든 더러운 것 붉은 죄 다 덮듯이 붉은 죄, 오만 때만 죄 다 있는데 흰 눈으로 다 덮었다. 양털같이 희게, 우리 죄가 있는데 덮었다. 해결하셨다. 그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간과다. 아직도 죄가 있고 죄인인데 하나님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을 나타내셔서 자기 의로우심을 주시고자 간과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의 은혜를 성취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는 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전에 영세 전에 빛의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바로 주셨다. 창 3:15 바로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다. 또 출 3:18 희생 제사, 피 제사. 그것을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흠 없는 어린양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죄가 없으시다. 빌라도 불신자인데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죄가 없으시고 간사함이 없다. 죄인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진다? 아무 소용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만 한 분 있다.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

또 말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셨다. 드디어 그리스도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 우리 다락방은 입에 붙어서 고백하죠. 그렇다. 자칫 잘못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별 감동, 재미가 없다. 왜? 워낙 그러니까. 경상

도 말 나쁜 말인데 귀에 딱가리 앉는다. 큰일 난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게 들려지고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버려도 된다. 성경 지식 잘 몰라도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해도 된다. 오직 예수 이름만 불러도 된다. 모자람, 부족함이 없다. 설교 멋들어지게 설교 잘하는데 얼마나 설교 다 잘하는가? 설교 잘 못해도 된다. 설교 잘 못하고 서툴러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고 전도 선포한다면 최고 잘하는 설교다.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설교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게 들려지고 감격이 되고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다 언약 성취하시고 운명하실 때 모든 언약과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성취하셨다는 선언 하셨다. 요 19:30에 기록되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 성경 말씀 원어에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얼마나 감사한가?

• 결론 -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결론은 한 개 나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한 번 더 붙인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오직 되어야 된다. 예수님 죄가 있어서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 문제,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로서 모든 구속의 언약을 예언된 것 성취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며 말씀되시며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참 빛이시다. 그것도 생명의 빛이다. 빛만 비치면 어두움이 떠나간다. 사탄의 흑암의 망대들이 깨어진다. 무너진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창 3:15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인공이시다. 출 3:18, 출애굽기 12장의 어린양의 피 실제 주인공이시다. 사 7:14 임마누엘 그 주인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베푸셨다. 이 십자가의 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 고전 2:2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알기로 했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이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되시고 초대교회와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처럼 오직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답, 결론, 끝이 나게 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구속사역의 핵심, 복음의 핵심 되는 여기에 오직 되게 하여 주시며 24로 기도의 비밀로 감격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오직 24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 하는 24 증인 되는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주 되신 십자가에서 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